

“예타 조사 지역균형발전 차원 전면 혁신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일보 보도 등 참조 ‘개혁 방안’ 제시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예타 면제 확대·기준 상향 등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른바 ‘경부축’ 중심의 국비 및 지방재정 편중으로 고착화된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정부 공모 방식, 투자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하며, 이를 대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광주일보 보도(2020년 11월30일~12월 2일자 1·3면) 등을 참조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소멸위기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이원화, 비수도권 예타 면제 대상 확대 및 기준 상향 조정, 부처 공모 추진 방식 개선, 투자심사제도 효율화, 대통령 공약 반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 광주일보는 기획재정부의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들을 분석해 예타가 결국 인구·경제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과 영남권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에서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제도의 대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예타 통과 및 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 및 영남권에 편중됐으며,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및 영남권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 또한 전국의 64.1%에 달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로 인해 현재의 국토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타 제도와 공모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원은 “지난 60여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광주전남은 분투해 왔지만,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산을 넘기 힘들었고 정부 공모에서는 번번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소멸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타와 공모 제도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제도를 이원화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보다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하고, 비수도권 대형국가연구시설 및 공공의료기관 등의 예타 면제 확대,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자체 사이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부처 공모 방식 전면 개편 등 방안이 제안됐다.

오 선임연구원은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재정투자의 결실체인 예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자세로 예타 제도와 공모 심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오전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내년 본 예산에 포함된 1338억원의 예산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조례·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설 명절 전후에 광주 시민 1명(총 148만명)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 행정위에서 조례안이 부류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이날 결국 조례안과 예산안까지 통과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역 맞춤형 특새 기업과 전남도, 941억 투자협약

조선·철강 등 12개 기업 유치

전남도가 목표 등 7개 시·군과 협력해 12개 지역 맞춤형 특새 기업과 941억원의 서면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 순천, 광양, 화순, 장흥, 영암, 장성 등 7개 시·군에 31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전남도가 분양률 80% 미만 산단에 입주하면 지원하는 보조금 효과에 따른 것이다. 목포 대양산단, 순천 해룡산단, 광양 익신산단에 5개 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목포 대양산단에는 ㈜케이디지 목포 대양산단에 25억원을 투자해 금속판넬과 스핀도어 제작공장을 신설한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한국씨앤씨와 ㈜마린소재가 각각 30억원, 67억원을 들여 철반모형 가공공장 및 고흡수성 합성수지(SAP)를 대체할 해조류 셀룰로스 흡수제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광양 익신산단에는 ㈜광수생각이 30억원을 투자해 곱품 분리형 전천후 시스템 제작공장을, 하나 밴딩산업은 22억 원을 투입해 철강 임가공 공장을 세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 참석한 김영록 지사(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광양에 열처리 산업 육성 종합 플랫폼 구축

금속가공 열처리지원센터 개소 고부가 장비·인력 양성 등 지원

최근 광양 익신산단에 열처리 장비 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열처리 산업 육성 종합 플랫폼인 ‘금속가공 열처리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김태균 전남도의원, 김경호 광양부시장, 진수와 광양시의 회 의장,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속소재 6대 뿌리기술 중 하나인 열처리는 다양한 온도로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등의 열변화를 통해 금속의 강도나 성질을 바꾸는 공정이다. 기계·자동차 부품의 강도, 내마모성, 정밀도 향상 등 제

품의 품질을 최종 결정하는 고부가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 기업은 지역의 열처리 산업 기반이 열악해 대부분의 열처리 공정을 타 지역에 의존했다. 이때문에 물류비 부담 가중, 제품개발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남도는 금속가공 열처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비 5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광양 익신산단에 건축면적 1790㎡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고사양의 진공열처리 등 7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산학연 열처리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 최적의 장비 활용 서비스를 하고,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열처

리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센터를 통해 전남에서도 고부가 열처리 공정이 가능해져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 지원과 비용 절감 등 혜택이 기대된다. 열처리 기업 역시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 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익신산단에 금속소재복합성형테스트베드,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면 열처리 산업 육성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전남도는 시·군, 전남 TP, 유관기관, 기업체와 적극 협력해 금속 가공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차 확대 탄소중립 앞당긴다

국비 827억 확보 8635대 보급

전남도가 환경부로부터 2022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국비 827억원을 확보해 수송 분야 탄소중립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133만대 보급계획에 맞춰 전기차 5만6000대, 수소차 1만 대, 총 6만6000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분야 국비는 올해(본예산 기준 538억원)보다 289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 예산으로 전기차 7533대, 수소차 1102대 등 8635대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당 1240만~1054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2040만~2240만원, 수소승용차는 대당 3450만~3750만원, 수소버스는 대당 3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군별로 지원액이 다를 수 있다.

전남도는 또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100기를 시군 신청을 받아 설치 지원하고, 2022년 환경부의 전기충전기 확충계획에도 적극 대응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목포, 여수, 고흥 등에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 7개소에 대해서도 조기 준공하도록 하고 2022년 국토부 및 환경부의 공모사업에도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참여토록 해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축용,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